



KOGA... 2025 SISMA 참관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동향

Vol. 95



오름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indocity1991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2026년
카렌다 제작
021 3002 9090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EU, 인도네시아와 무역 협정 체결... “거의 모든 상품, 무관세”

협상 10년 만에...공급망 다각화 의도
인도네시아, 동남아 최대 경제국
96% 상품, 5년 내 관세 '0' 으로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가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10여 년 이어진 협상 끝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합의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이번 협정은 10여년에 걸친 협상 끝에 체결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에 맞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 경제안보 집행위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역 규모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금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날 인도네시아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할 예정이다.



▲로이터연합뉴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전체 교역 상품의 약 96%에 대해 향후 5년 이내에 관세가 0%로 낮아진다.

EU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50% 관세는 5년 이내에 사라지고, 기계나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던 30% 관세도 단시간 내에 0%로 인하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허가 등 각종 수출 규제가 철폐되고 농산물과 식품류 역시 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EU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최소 30%, 약 30억유로(약4조9360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그리고 인도네시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번 협정으로 유럽 수출업체들이 약 6억유로(약 9900억원)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아시아경제

KOGA, 2025 SISMA 참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상해에서 열리는 China International Sewing Machinery & Accessories Show (CISMA 2025)에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김화봉회장과 서광호수석 부회장등이 매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대안 모색을 하고자 자동봉제 시스템 견학 차원에 참관했다.

매 2년마다 열리는 SISMA는 가장 큰 봉제 전시회로써 올해는 “Intelligent Sewing Empowers Industry’s New Quality Development” (지능형 봉제

가 산업의 새로운 품질 발전을 촉진)이라는 주제로 스마트 봉제 기술 및 자동화, 디지털 통합 등이 강조되었다.

전시 범위와 주요 품목으로는 전처리(pre-sewing), 재봉(sewing), 후처리(post-sewing) 설비, 자수 기계, CAD/CAM 시스템, 봉제 부품 및 액세서리 등 봉제 및 의류 제조 공정 전반을 아우르는 장비 및 솔루션으로 미래형 봉제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였다.

[편집국]

기보, 인도네시아서 ‘원스톱 금융지원 설명회’ 개최

기술보증기금은 이달 25일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찾아가는 인도네시아 원스톱 금융지원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설명회는 세계 4위의 인구 규모와 빠른 디지털 경제 성장으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술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현지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와 더벤처스, 인디스캐피탈, 인터베스트, 킬사글로벌 등 국내외 벤처캐피탈(VC)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함정환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의 개최사를 시작으로 △기보의 기술평가체계 및 해외진출보증 제도 안내 △은행별 금융상품 소개 △동남아시아 투자 트렌드 및 펀드레이징 전략 소개 △글로벌 VC 투자 전략·절차 공유 △기업별 프라이빗 IR 및 1대1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기보는 현장에서 5개 기업에 총 35억 원 규모의 해외진출보증

지원 절차를 개시해 실행력 있는 금융 솔루션을 직접 제시했다. 참여 기업들은 보증기관, VC, 은행을 한자리에서 만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호평을 남겼다. 광용주 기보 싱가포르지점장은 “설명회를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해외 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사진 (기보 제공)

한편 기보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아세안 주요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고 현지 금융기관 및 투자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 1]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4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인니 정부, 근로자소득세 수입 분배 개편... 근로자 실주거 지역으로 돌려준다



▲자카르타 땀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근로자 소득세(PPH 21)에 대한 수입 배분 제도를 개편하여 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수입을 이전할 예정이다. 이는 자금 배분을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1일 전했다.

예를 들어, 서부 자바의 보고르와 브카시와 같은 위성 도시에서 자카르타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현재 소득세가 자카르타 국고로 흘러들어간다.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세수는 근로자가 살고 있는 서부 자바로 이전되어 해당 지방 정부가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양기포 아비마뉴 재무부 차관은 지난 2일 지역대표자협의회(DPD) IV위원회와의 온라인 회의에서 “현재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반으로 한 세수 공유를 시행하는 절차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세수 배분 시스템은 근로자 소득세(PPH21)에만 적용된다. 법인세 [PPH badan]는 공유되지 않으므로

세금 징수 위치가 세수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와 근로자소득세(PPH21)에서 발생하는 국가 수입은 20%의 비율로 지방에 배분되며, 나머지 80%는 중앙 정부로 들어간다.

지역 지분 중 PPH 21에서 징수한 수입분배기금(DBH)은 8%는 지방정부에, 12%는 시군에 배분된다.

인도네시아 조세분석센터(CITA)의 연구관리자 파즈리 악바르는 이 정책이 의도치 않게 기업들이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만 고용하도록 유도하여 세수가 기업의 소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즈리는 새로운 제도가 주요 도시와 산업 중심지 외곽 지역의 행정부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영향은 주로 자바 섬의 지역에 집중될 것이며 인도네시아 동부의 심각한 경제적 격차는 대부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피라 소장은 이 계획에 대해, 정

부가 대신 비과세 소득 기준(PTKP)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비마는 지난 4일 “현재 450만 루피아로 비과세 소득 기준(PTKP)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PTKP를 인상할 것을 요구해 왔고, 월 소득이 약 700만 루피아인 중산층은 PPh 21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비마는 비과세 소득 기준(PTKP)을 인상하면 가처분 소득의 여유가 더 많아져 지역 차원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의 주소지 기반으로 한 근로자 소득세(PPH 21) 수입 분배는 근로자 중 상당수(약 759만 명)가 통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국가수입을 늘리고 무료 영양식과 홍백 협동조합 등 뿌라보워 수비안포 대통령의 고비용의 주력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정부 예산에서 지역 보조금(TKD)을 650조 루피아로 25% 가까이 삭감한 후 전국의 지방 정부는 이미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외딴 지역의 공공 서비스에 부담을 주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인니 정부, 골든비자 투자액 48조 루피아 돌파



▲수카르노 하타 공항 자동 출입국 심사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작년에 도입된 특별 거주 허가인 골든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48조 루피아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8일 전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9월 23일 기준으로 총 1,012개의 골든 비자가 발급되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디 유스만 이민국장 대행은 25일, 골든 비자 발급으로 129억 6천만 루피아의 비과세 국가 수입을 창출했다고 보고했다.

인도네시아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외국 기업들이 46조 5천억 루피아로 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이 2,493억 루피아를 투자했으며, 기타 골든비자 수혜자들이 나머지 1조 4,500억 루피아를 투자했다.

지금까지 61개국 출신의 사람들이 골든 비자를 받았다.

골든 비자 체류 허가는 투자자,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 국적자 및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뿐만 아니라 전 인도네시아 시민 및 그 가족 자녀를 포함한 특정 범주의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특별 허가는 유효 기간이 5년 ~10년이며, 공항에서 우선 출입국심사, 간소화된 이민 서비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개인 투자자는 최소 250만 달러 상당의 회사를 설립하여 5년 동안 골든 비자를 받거나, 500만 달러 상당의 회사 설립으로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또는 인도네시아에 회사를 설립할 의사가 없는 개인 외국인 투자자는 5년 비자의 경우 35만 달러, 10년 비자의 경우 70만 달러 등 일정 금액의 자금을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업 투자자들은 이사 및 위원이 5년 비자를 받으려면 2,5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10년 허가를 받으려면 5천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골든 비자 프로그램은 지난해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부유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인도네시아 경제에 승수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화물용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승객용엘리베이터
PASSENGER ELEVATOR

식당용엘리베이터
DUMB WAITER

운반하역기계
DOCK LEVELER

INDONESIA | 이윤환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 이윤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재고 바닥난 민간 연료기업들, 국영석유회사에서 연료 구매 합의...가격, 품질 우려



▲쁘르따미나 주유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민간 연료 대기업인 셸(Shell), 비피(BP-AKR), 비보(Vivo)는 지난달 말부터 재고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영기업 뿌르따미나(PT Pertamina)로부터 기본 연료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4일 전했다.

‘전례 없는 파트너십’이 인도네시아 연료 시장을 재편할 수 있지만, 분석가들은 연료 품질 기준부터 가격 투명성까지 이번 계약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뿌르따미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참여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바흐릴 라하달리아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가 수입 할당량을 소진한 민간 소매업체들이 직면한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뿌르따미나를 통해 추가 기본 연료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뿌르따미나의 소매 부문인 뿌르따미나 빠트라 니아가(Pertamina Patra Niaga)가

약 752만 킬로리터의 미사용 수입 할당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연말까지 민간 소매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에너지부는 밝혔다.

뿌르따미나와 계약 조건은 기본 연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는 혼합 연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 연료는 연료 제품의 기초가 되는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제품이다. 민간기업들은 이 기본 연료를 자체 저장 탱크에서 처리하여 자사의 특정 기준과 브랜드 특성에 맞게 독점 첨가제를 추가한다.

에너지부 대변인 드위 앙기아는 이번 조치가 민간 소매업체의 국내 연료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연말까지만 가능한 단기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뿌라보워 수비안포 대통령이 에너지 자급자족과 수입 의존도 감소 추진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민간 소매업체들 사이에서 연료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수입 정책의 변화와 고정된 연료 수입 할당량을 지적해 왔다.

이 문제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연간 수입 허가를 받던 주기 수입허가로 전환하면서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고 행정적 지연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전 연간 체계 하에서는 기업들이 더 많은 양의 장기적인 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복잡한 관료적 프로세스를 자주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

소식통은 또한 19일에 발표된 거래 이전에는 민간업체들이 뿌르따미나로부터 연료를 조달할 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석유엔지니어협회(IATMI)의 자문위원인 하디 이스모요는 이 전례 없는 협력에 대해 품질과 비용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종 혼합 제품이 직수입 품질과 같은 품질이 될지, 결정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지 여부가 딜레마라는 것이다.

그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와의 인터뷰에서, “비용이 더 높으면 민간 기업은 손실을 흡수하거나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업계가 어렵게 얻은 브랜드 충성도에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마다 대학교(UGM) 에너지 연구센터의 에너지 경제학자 아흐마드 라흐마 와르다나도 정부가 주요 부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장려하여 뿌르따미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네시아는 2004년에 뿌르따미나의 연료 소매 독점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지만 여전히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수요는 민간 주유소로 이동했는데, 이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연료 판매 제한과 더불어 최근에는 2월에 뿌르따미나에 대한 부패수사로 인해 일부 소비자

들이 더 비싸지만 품질이 보장이 되는 경쟁 브랜드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흐마드는 일시적인 연료 공급 정책이 “엄격히 기술적”인 근거를 유지한다면 장기적인 투자 신뢰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료 가격 문제 바흐릴 장관은 거래에 참여할 모든 기업이 공정한 시장 가격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며, 이 거래가 상호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될 구체적인 연료량은 기업 간에 직접 결정될 예정이다. 주유소의 소매 가격은 정부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평균 플랫폼 싱가포르(MOPS) 평균 가격에 물류, 보관 및 배송 비용을 포함하는 알파값과 최대 10%의 소매 마진을 더한 가격이다.

소매업체들은 이 수익 한도에 묶여 있지만, 알파값이 증가하면 최종 가격은 여전히 변동될 수 있다. 알파 변수 내에서 배송 및 보관 비용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뿌르따미나와의 협상이 기업 간 거래(B2B)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LX인터, 인도네시아에 1006억원 투자 검토”



LX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동부칼리만탄주 동타이군 말로이 마을에 위치한 이주 지역 투자 초읽기에 나섰다.

29일 현지 매체 콤포스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엑스포)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프티타 슬라이만 인도네시아 이주부 장관은 이주경제개발·지역사회역량강화청 벨

릭스 베르난도 국장으로부터 LX인터내셔널 투자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프티타 이주부 장관은 지난 27일 “LX는 말로이 이주 지역의 토지에 투자하고 항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초기 투자금 1조2000억루피아(약 1006억원)를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시 확인해야 하지만 초기 보고에 따르면 LX는 우선 1조 2000억루피아를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프티타 이주부 장관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오사카 엑스포 2025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출장에서 인도네시아 154개 이주 지역을 새로운 경제 성장 거점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nate뉴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AI기본법 시행령, 모호한 기준이 산업 경쟁력 흐른다

2026년 1월 첫 시행 앞두고 업계 혼란
현실 반영한 합리적 집행 필요
고영향 AI 기준·투명성 의무 모호
스타트업·중소기업 규제 부담 완화 절실



▲사진=게티이미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둘러싸고 학계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8일 공개된 시행령 초안이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모호해 법 집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AI기본법은 범죄 수사, 채용·대출 심사 등 국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안전성·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고영향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 탓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는 “범용모델·오픈소스 모델 활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17일 ‘AI기본법의 발전적 시행을 위한 제언(AI기본법 제언)’ 보고서(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

현경 교수)를 발간하고 시행령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제안한다.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7대 발전적 시행 제언을 발표했다.

시행령 단계에서 ▲고영향 AI 예외 및 해제 기준 마련 ▲정부 주도의 고영향 판단 절차 전환 ▲AI 시스템 정의 구체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친화적 준수체계 구축 ▲개발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의무 구분 ▲이용자 개념의 명확화 ▲투명성 의무 예외 규정 마련을 검토했다. 그는 “AI기본법은 모호성이 존재하지만 정책 거버넌스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우리 입법에 단초가 됐던 EU AI법(이하 AI Act)와 정합성을 확보해야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

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I기본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규정해 사실상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학습 연산량(FLOPs) 기준만으로 안전성 의무 부과 여부를 정하는 조항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연산량 기준은 특정 기업 보호를 위한 정치적 타협 산물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AI기본법 제언 보고서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기술 문서와 템플릿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친화적 준수체계 구축 ▲간소화된 행정 절차 마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문서 양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I기본법은 범죄 수사·채용·대출 심사 등 국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안전성·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사업자가 스스로 고영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범용 모델이나 오픈소스 모델 활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책임만 전가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확인 절차는 최대 3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어 사업 일정 차질 우려가 크



김재훈의 세무상식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차입시 이자



김재훈 대표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데, 무이자로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자주 문의를 받고 있다.

무이자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시장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이자 대출을 하게 되면, 세무당국에서는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며 가산 이자를 산정하고, 원천세등을 추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에 어떤 기업이 국세청에 무이자 대여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국세청 답신서가 있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국세청서신으로 (Surat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S-165/PJ.312/1992) 답변서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로 회신하였다.

a. 대출은 다른 당사자가 아닌 주주가 소유한 자금이어야 한다.

b. 모회사는 대출을 받은 자회사의 자본금이 완전히 납입

되어야 한다.

c. 모회사는 손실이 없어야 한다.

d. 대출을 받은 자회사는 사업유지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한다.

위의 네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은 공정한 이자로 책정하여야 한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i Hukum Pengad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잠 국제전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참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e-mail: kimjhoon@bngconsulting.co.kr

다는 지적이다.

광범위한 AI 정의·연산량 기준 논란

AI기본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진 모든 소프트웨어로 규정, 사실상 대부분의 시스템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 학습 연산량(FLOPs) 기준만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를 정한 조항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AI기본법제언 보고서

는 “연산량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특정 기업 보호를 위한 정치적 타협 산물”이라고 우려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반영한 현장 의견에 따르면 지나치게 복잡한 문서와 템플릿은 중소기업에게 치명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간소화된 준수 체계와 표준화된 문서 양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처 : 한국성유신문



PT. ACE ENERGY SERVICE

Electical - Mechanical - IUJPTL (Solar Plant) - O&M

- ACE와 함께 2025년 귀사의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 태양광 사업 제안에서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태양광 선두주자!

인도네시아에 청정에너지를 담습니다!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PLN보다 저렴한 태양광 사용전력 비용만 납부하세요.

-  **설치비 X, PLN전기로 보다 저렴한 태양광 전기료 납부**
-  **운영비 X, ACE와 글로벌 투자사가 20-25년 보증 운영**
-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 제고**

ACE ENERGY SERVICE는 On-Grid / Off-Grid 태양광 Total PV 시스템을 제공 미래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는 EPC/O&M 회사입니다.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Song Kwang Ho : 0812 8168 3844 / dragonhoya@gmail.com



<PT. Hwa Seung Indonesia_Jepara_4.1MWp>



<PT. Parkland World 3_Jepara_2.4MWp>



<PT. Handal Sukses Karya_Jepara_1.1MWp>



<세아 상역 인도네시아_2MWp>

※ PT. Shinsung Grand Indonesia, PT. Kanindo makmur jaya, PT. Pung Kook Indonesia One 외 다수

[이코노 인터뷰] “인도네시아는 기회의 땅, 그러나 ‘현지화’ 없는 진출은 환상이다”

인기 걸 밴드 전속모델...팝업·콜라보로 팬덤 공략 150% 신장 자신감...26년 플래그십·해외 진출 박차



▲ ‘김유나(왼쪽) GBC 자카르타 소장과 김상수 리얼캐피탈 상무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 GBC 자카르타]

메디쿼터스(대표 이두진)가 전개하는 ‘아메스 월드와이드’가 2025 F/W 시즌 전속 모델로 인기 걸 밴드 QWER(큐더블유이알)을 발탁하고 500억 브랜드 도약에 나선다. 타마고 프로덕션 소속의 4인조 걸밴드 QWER은 헬스 크리에이터 김계란이 기획한 ‘최애의 아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데뷔, 젊은 팬덤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메스는 QWER의 자유롭고 유쾌한 청춘 에너지를 접목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아메스 월드와이드는 지난해 약 90억 원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 9월 이미 연초 세운 100% 목표치를 달성했다. 기존 목표는 110억 원이었지만 현 판매 추세를 볼 때 연말에는 130억 원 달성이 전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0% 신장세다. 성장 배경에는 주력 아이템의

힘이 컸다.

FW 시즌에는 베이직 로고, 빅 타이포 로고 제품이 매출을 견인했다. 특히 톤온톤 빅 타이포 로고 상품은 지난해부터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며 지속적인 판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S/S 시즌 역시 베이직 로고 티셔츠와 라운드넥 티셔츠 등 캐리오버 아이템이 컬러 바리에이션을 통한 뉴 오더 상품으로 지속적인 판매를 일으키며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했다. 이는 올 상반기 신상품 판매율이 70% 이상을 기록하는 성과로 이어지며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시즌을 마감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번 시즌 컬렉션은 1990년대 레트로 스트리트 감성과 이지 캐주얼 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롱슬리브, 팬투팬, 팬츠, 헤드웨어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갖추고 있으며, 일상에서 활용도 높은 실용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오는 9월 30일 정식 발매되며, 10월 중순에는 QWER과 협업 제품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무신사 스토어 성수대림창고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 온·오프라인 접점을 강화한다.

QWER 발탁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컬렉션 출시일에 맞춰 제품 구매 고객에게 QWER 멤버 포토카드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팬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김유나 GBC 자카르타 소장 [사진 GBC 자카르타]

유도한다.

아메스 월드와이드는 내년 매출 목표를 150억 원 이상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상반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및 백화점 유통망 확장, 일본 시장 본격 진출 및 오프라인 팝업 추진 등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핵심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운영 전략도 뚜렷하다. 26 S/S에는 오프라인 유통 확대를 고려해 클래식 라인을 신규 론칭한다. 반복 구매가 용이한 베이직 상품에 페미닌 감성을 보강해 제품군을 구성한다.

또한 브랜드 IP 콜라보레이션을 이어가며, 핫섬머 시즌에는 신규 협업 프로젝트도 예정돼 있다. 기존 베스트 셀러인 티셔츠·스웨트셔츠 제품에서 더 나아가 팬츠·스커트·원피스 등 여성 SKU를 강화하고, 가방·잡화 등 액세서리 카테고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찾아가는 원스톱 금융지원 설명회’ 개최

VC·은행·보증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진출 기업 맞춤형 금융 상담 제공



▲2025 찾아가는 원스톱 금융지원 설명회(사진=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센터장 이영직)는 9월 25일(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원스톱 금융지원 설명회」를 기술보증기금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아세안 현지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과 재외동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보증·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을 한 자리에서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함정환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영직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장의 환영사, 광용주 기술보증기금 아시아지역본부장의 인사말, 구형희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장과 장윤하 한인 중소벤처기업협회회장의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어 ▲해외진출보증 제도 안내(기술보증기금) ▲한국계 은행 코리아안데스크 금융상품 소개(신한은행, 기업은행) ▲동남아시아 투자 트렌드 및 펀드레이징 전략(인디스캐피탈) ▲국내외 VC의 글로벌 투자 전략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후반부에는 기업별 프라이

빗 IR 세션, VC·은행·보증기관과의 1:1 맞춤형 상담, 그리고 네트워킹 만찬이 이어졌다.

이영직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는 한국과 아세안 간 금융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센터는 앞으로도 한국의 공공기관, 현지 금융기관, 아세안 벤처캐피탈 등과 긴밀히 협력해 현지 기업의 자금조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술보증기금의 해외진출보증 상담을 비롯하여, 신한·IBK·우리·하나은행 등 인도네시아 진출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 인디스캐피탈·인터베스트·더벤처스·킬사글로벌 등 아세안 주요국 벤처캐피탈이 참여해 우리 기업들과의 1:1 상담에 나섰다.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앞으로도 현지 기업과 금융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자카르타경제신문]



PT. JASON LOGISTIC INDONESIA

글로벌 물류 전문 파트너

Your Professional Global Logistics Partner

장기적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하는 물류 파트너

-  Air Cargo
-  Sea Cargo
-  Warehouse
-  Customer Service



JASON 지사
 중국: 상하이, 광저우, 선진, 샤이먼, 청도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대만/한국

Ruko Gading Kirana Blok C10 No.10, Kel. Kelapa Gading, Kec.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p: 021-45855919 | Email : cs.team@jli.kr
 한국담당자: 박치성 +62 821 1210 0051 | 현지담당자: HENDRA +62 898 1142 2911

섬유 시험기관에서 글로벌 인증 허브로... KOTITI의 변신

KOTITI시험연구원(원장 이상락)이 전통적인 섬유 시험·인증의 틀을 넘어 의료·바이오, 모빌리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며 글로벌 시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국제 규제 대응 지원, 첨단 시험 인프라 확보를 통해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올라선 모습이다. 최근 ㈜KM 신병순 회장과 최아영 감사가 KOTITI를 방문해 의료·바이오와 반도체 분야에서 활용되는 위생·보호용 제품의 품질관리와 시험·검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마스크, 방호복 등 위생 제품의 글로벌 수요 확대와 더불어 의료용 소재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KOTITI가 가진 섬유 분야 전문성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KOTITI는 또한 KG모빌리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협약에는 모빌리티 시험·분석, 배터리 시험·인증, 표준화, 연구개발, 기술·정보 교류 등 다양한 협력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평택 E-Mobility Center에 배터리 시험동을 추가 증축해 전기차 및 이차전지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인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시험·분석 인프라 강화와 더불어 KOTITI는 국제 규제와 시장 동향 분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원은 '국내외 규제 및 시장 동향 분석보고서 Vol. 08'



▲코티티시험연구원 과천 본원

을 발간해 AI 기반 소재 개발과 데이터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 고관세 정책, 유럽 연합의 CLP 규정 개정, 영국의 UK REACH 등 유기한 연장 등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를 정리하며 기업들의 선제 대응을 돕고 있다. 섬유·소비재, 전기전자, 생활화학,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른 점은 KOTITI의 분석 역량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시험 서비스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KOTITI 모빌리티는 연수분무 시험 서비스를 개시해 부품의 내식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부품사들이 제품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교육과 세미나 활동도 활발하다. 연구원은 PFAS(과불화화합물) 세미나를 개최해 산업계에 최신 규제 정보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현장 기술인력 재교육 과정

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 시험·인증 기능을 넘어 산업계와 지식을 교류하고 역량을 키우는 파트너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섬유 시험기관으로 출발한 KOTITI는 이제 종합 시험·연구기관으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상락원장은 "섬유로 다져온 전문성과 신뢰를 토대로 의료·바이오, 모빌리티, 반도체까지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업과의 협력 성과를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기업들이 기술개발 속도를 높이고 국제 규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시험·분석 파트너는 필수적이다. KOTITI의 행보는 단순히 연구소의 외연 확장을 넘어 한국 시험·인증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디셈버, 2025 자카르타 박람회 통해 인도네시아 패션시장 진출 모색

디셈버(대표 임정환)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컨벤션센터(JICC)에서 열린 2025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해 디셈버의 브랜드 어비험즈(ABEEHUMS)와 지쿤(GEECOON)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코엑스가 공동 주최하고, 인도네시아 파트너사 WWTP가 참여하는 소비재 전문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는 441개 기업이 참여해 현지 바이어 1100명과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아세안 주요국들의 유통 바이어와 41개사가 수출 상담을 통해 총 26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주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 박람회 전시장에서 K-유니버스는 K-뷰티, K-패션 특관을 운영한 디셈버는 어비험즈와 지쿤 브랜드 피팅 부스와 글로벌 아이돌 걸그룹 '블링원'을 홍보하며,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준비한 어비험즈와 지쿤의 제품들은 라이브스토어와 스태프 및 쇼호스트 베스트 상품으로 선정되며, 현지인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사진=디셈버]

온라인 홍보도 효과를 거뒀다. 팔로워 360만의 배우이자 메가 인플루언서와 미스인도네시아 협회의 지원을 통해 현지 매체 인터뷰와 미스 인도네시아와 디셈버 현지 담당자가 직접 출연한 유튜브는 최대 조회수를 기록 하는 등 행사가 종료된 현재까지도 현지인들의 인스타그램과 각종 SNS 통해 업데이트되고 있다.

임정환 디셈버 대표는 "인도네시아 시장 내 한국 패션 제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반응을 토대로 현지 생산 설비 구축 및 현지 생산업체와의 MOU 체결 등 향후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을 본격화 하겠다" 라고 밝혔다.

월간 KOGA지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지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지(월간)

1) KOGA지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3002 9090/91 0821 1122 8827 (Mr. Kang)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YUSUNG E&C

종합건설 & 엔지니어링

유성열 대표 : 081280370303

이광선 이사 : 081210077732

건설 기계 전기 배관

PT. YUSUNG JAYA ABADI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 yusungjaya1@hotmail.com / Tel. (021) 598 0222 / 598 2666

아메스월드와이드, QWER 등에 업고 500억 브랜드 도약 준비

인기 걸 밴드 전속모델...팝업·콜라보로 팬덤 공략
150% 신장 자신감...26년 플래그십·해외 진출 박차

메디쿼터스(대표 이두진)가 전개하는 '아메스 월드와이드'가 2025 F/W 시즌 전속 모델로 인기 걸 밴드 QWER(큐더블유이말)을 발탁하고 500억 브랜드 도약에 나선다.



▲ '아메스 월드와이드'가 2025 F/W 시즌 전속 모델로 인기 걸 밴드 QWER(큐더블유이말)을 발탁하고 500억 브랜드 도약에 나선다.

타마고 프로덕션 소속의 4인조 걸밴드 QWER은 헬스 크리에이터 김계란이 기획한 '최애의 아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데뷔, 젊은 팬덤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메스는 QWER의 자유롭고 유쾌한 청춘 에너지를 접목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아메스 월드와이드는 지난해 약 90억 원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 9월 이미 연초 세운 100% 목표치를 달성했다. 기존 목표는 110억 원이었지만 현 판매 추세로 볼 때 연말에는 130억 원 달성이 전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0% 신장세다.

성장 배경에는 주력 아이템의 힘이 컸다. FW 시즌에는 베이직 로고, 빅 타이포 로고 제품이 매출을 견인했다. 특히 톤온톤 빅 타이포 로고 상품은 지난해부터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며 지속적인 판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S/S 시즌 역시 베이직 로고 티셔츠와 라운드햄 티셔츠 등 캐리오

버 아이템이 컬러 바リエ이션을 통한 뉴 오더 상품으로 지속적인 판매를 일으키며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했다. 이는 올 상반기 신상품 판매율이 70% 이상을 기록하는 성과로 이어지며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시즌을 마감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번 시즌 컬렉션은 1990년대 레트로 스트리트 감성과 이지 캐주얼 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룽슬리브, 맨투맨, 팬츠, 헤드웨어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갖추고 있으며, 일상에서 활용도 높은 실용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오는 9월 30일 정식 발매되며, 10월 중순에는 QWER과 협업 제품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무신사 스토어 성수 대림창고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 온·오프라인

접점을 강화한다.

QWER 발탁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컬렉션 출시일에 맞춰 제품 구매 고객에게 QWER 멤버 포토카드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팬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아메스 월드와이드는 내년 매출 목표를 150억 원 이상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상반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및 백화점 유통망 확장, 일본 시장 본격 진출 및 오프라인 팝업 추진 등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핵심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운영 전략도 뚜렷하다. 26 S/S에는 오프라인 유통 확대를 고려해 클래식 라인을 신규 론칭한다. 반복 구매가 용이한 베이직 상품에 페미닌 감성을 보강해 제품군을 구성한다.

또한 브랜드 IP 콜라보레이션을 이어가며, 핫섬머 시즌에는 신규 협업 프로젝트도 예정돼 있다. 기존 베스트 셀러인 티셔츠·스커트·원피스 등 여성 SKU를 강화하고, 가방·잡화 등 액세서리 카테고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섬산련, '2025년 상반기 섬유패션산업 통계자료집' 발간 국내외 섬유패션산업 전반을 망라한 종합 통계 제공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는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구조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섬유패션산업 통계자료집(2025년 상반기)'을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www.kofoti.or.kr)를 통해 공개하였다.

섬산련은 섬유패션산업통계 관련 정보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월별로는 섬유류 수출입 실적 및 주요 경기지표를 집계·공표, 분기별로는 업종별·지역별 섬유패션산업 동향과 섬유패션 관련 상장기업 경영실적을 분석·발표, 반기별로는 산업 전반을 총망라한 「섬유패션산업 통계자료집」 발간

이번에 발간된 통계자료집은 반기별 통계 자료 제공의 일환으로, 섬유패션산업의 주요 지표를 집대성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체·종사자 현황, ▲출하액·부가가치·생산액,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생산능력·가동률 지수, ▲근로시간 및 임금, ▲기업경영분석 주요 지표, ▲세계 섬유산업 및 주요국 동향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였다.

또한, △국내 생산·출하·재고 지표, △물가지수, △해외 투자 현황, △세계 섬유·의류 무역 동향, △중국·일본·대만 등 주요국 섬유류 수출입 현황을 포함하여 국내외 산업을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자료집은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화된 통계 기반 자료로서, 업계·정책당국·학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오 회장은 "섬유패션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이번 통계자료집은 엄정하고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업계와 정책당국이 미래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섬유패션산업 통계자료집(2025 상반기)」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문의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전략기획실 (02-528-4067, anncho@kofoti.or.kr)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성웅 Hp : 0812 9512 8990

★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광복 80주년과 인도네시아 독립 80주년, 그리고 인도네시아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환경 캠페인 '쓰담쓰담 그린런'이 지난 9월 21일(일)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자카르타 겔라라 봉 카르노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는 5km 달리기와 2km 플로깅 두 종목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티셔츠 디자인에 따라 거북팀과 토끼팀으로 나뉘어 플로깅을 진행했으며, 각자 루트를 따라 쓰레기를 수거한 뒤 기념촬영을 통해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함께 모은 쓰레기의 총량은 227킬로그램에 달했다. KT&G는 이 성과를 단순한 수거 활동에 그치지 않고 환경회복으로 이어가기 위해, 1킬로그램당 100그루의 비율로 환산해 총 22,700그루의 맹그로브 묘목을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행사 후 참가자들은 준비된 바나나와 스낵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다양한 푸드 부스와 공연,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1차와 2차에 걸친 경품 추첨은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KT&G가 공동 주최했으며, 무궁화유통, 진영푸드, 다소니어, 재인도네시아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문예총)가 후원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양국 사회와 경제 리더들의 동참 행사에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김종헌 회장, 김우재, 박은주 명예고문 내외, 김종희, 양태하, 이정호, 이지완 수석부회장,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이강현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이세호 전 회장, 재인도네시아 완구협회 강선학 회장, 한인 중소기업협의회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쓰담쓰담 그린런' 성황리 개최

227kg의 쓰레기 수거, 22,700그루 맹그로브 숲으로 이어진 연대의 약속
달리기와 플로깅, 문화 체험으로 하나된 참가자들



▲ '쓰담쓰담 그린런' 현장 모습(사진=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장윤하 회장, 재인도네시아문화예술총연합회 김혜정 수석부회장 등 한인 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강원준 총영사, 인도네시아 경찰청 Philemon Ginting 국장, 인도네시아 산업부 Putu Juli Ardika 차관보, 무역부 Mardiyana Listiyowati 차관보 등 양국의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아울러 Alfamart의 Djuwita Pujanti 총괄매니저, Alfamidi의 Meilannya Hadiwijaya 총괄매니저 등 인도네시아 대표 기업 인사들도 자리해 교류의 폭을 넓혔다.

“우정과 신뢰, 새로운 협력의 장 되길”

김종헌 한인회장은 축사에서 “2025년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과 인도네시아 독립 80주년을 함께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



▲쓰담쓰담 그린런 참가자들(사진=한인회)

며 “이번 협동 플로깅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자연을 소중히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나누는 자리였다. 동시에 양국이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확인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준 총영사 역시 “이번 행

사를 위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KT&G 한인영 법인장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의 협력으로 이번 행사를 더욱 뜻깊게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무대에서 'KT&G'를 외치자 참가자들이 'Love Yourself'로 화답해 현장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KT&G는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며 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천해왔으며, 'SangSang Univ.' 프로그램 운영과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매운맛이 점령한 K-푸드코트와

문예총 체험 부스 인기 행사장에서 단연 가장 인기 있던 코너는 K-푸드코트와 재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문예총)가 운영한 한국문화체험 부스였다. 푸드코트에서는 무궁화 유통이 판매하는 현지 인기라면 '불면(Bulmyun)'과 진영푸드의 대표 메뉴 '진뽀끼'를 비롯한 한국 음식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문예총 체험 부스에서는 캘리그래피, 봉숭아 물들이기, 자개 키링 만들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행사 내내 긴 줄을 이어갈 만큼 호응을 얻었다. 완성된 작품들이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놓이자 현장은 야외 전시장으로 변신했다.

문예총체험부스에는 20명의 학생 봉사자들이 참여해 안내와 진행을 도우며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했다. 새벽부터 준비한 문예총 관계자들과 청소년 봉사자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번 '쓰담쓰담 그린런'은 환경 캠페인을 넘어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으로 확장됐다. 자카르타 국제학교(JKS)를 비롯한 여러 국제학교 학생들도 다수 참여해, 청소년들이 환경과 공동체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환경·공동체의 연대를 잇는 축제
자카르타의 러닝 열풍 속에서 열린 '2025 쓰담쓰담 그린런'은 단순한 달리를 넘어, 광복과 독립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의 발걸음은 227킬로그램의 쓰레기를 넘어 22,700그루의 맹그로브 숲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는 양국이 함께 지켜낸 환경의 약속이자, 미래 세대에 남겨줄 소중한 자산이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자카르타경제신문]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기계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이갑진 매니저: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임지은 SL하이탭 대표 첫 단추 잘 꿰 국내산 똑딱이 단추...新의류부자재로 세계화 시동

가격과 품질 경쟁력 높은 국내 생산 플라스틱 스냅버튼
79종 기본 컬러와 로고 인쇄 가능한 하이탭도 경쟁력

‘똑딱이 단추’ 라고 불리는 ‘스냅단추’ 는 전체 단추에서 약 5%를 차지한다. 이중 한국 기업의 스냅단추 개발이 아주 적다. 스냅단추 아이템은 일본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패션 기업들은 99% 이상을 수입에 사용하고 있다. 임지은 에스엘 하이탭(SL HIGHTAP) 대표는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처럼 제대로 된 단추를 만들며 사업을 못할 이유가 없겠다는 질문에서 시작했다.

임지은 대표는 이런 화두에 매달려 10년의 금형 개발에 고군분투했다. 5년 전인 2020년 회사를 설립하고 일명 똑딱이 단추인 플라스틱 스냅버튼을 완성했다. 의류 부자재 시장에서 혁신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다.

에스엘 하이탭은 기존 스냅단

추 중 가장 다양한 컬러인 79종의 ‘하이탭(HI Tap)’ 을 선보이고 있다. 나아가 단추 표면에 가벼운 무독성 알루미늄 소재를 입히고 로고 인쇄가 가능한 스냅버튼 ‘하이캡(HI Cap)’ 까지 출시했다. SL 하이탭은 올해부터 더 적극적으로 영업에 들어간다.

스냅단추 개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미술분야를 전공하고 전시 기획 쪽에서 일을 했다. 이후 인연이 있었던 섬유와 봉제 전문가를 알게 됐다. 당시 한국산 스냅단추가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인연으로 단추 개발에 나섰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분야지만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의류 부자재 쪽 분야를 전혀 모르고 시작했다. 초기 개발에 고군분투를 하며 여러 가지 시행

착오를 거쳤다. 스냅버튼은 작은 단추 하나지만 전체 패션의 인상을 결정지는 중요한 아이템이다. 소홀히 하기 쉽지만 스냅단추가 이상하면 전체 인상을 완전히 망쳐버린다. 미술을 전공해서인지 작은 부자재지만 중요했다. 제대로 만들고 싶다는 일념에서 출발했다. 일명 똑딱이 단추는 대부분 일본 기업이 선점하고 있다. 현재 99% 이상 해외에서 수입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단추는 환율 영향도 있고 또 수급에 있어서 불안정성도 있다.

국산 제품은 아주 적고 불량률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 또 저렴한 제품들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 개발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해보자’ 싶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종류를 다양하게 하



▲임지은 SL하이탭 대표. 사진=정정숙 기자

면 니치 마켓으로 승산이 있어 보였다.”

제품 특징과 차별화된 시장 접근 전략은.

“현재 나와있는 스냅 단추 중 가장 다양한 컬러를 선보이고 있다. 파스텔 색상 포함해 79종의 스냅버튼이다. 이는 수입 제품에 비해 2~3배 정도 많은 컬러 구성이다. 단추의 A, B, C, D 총 4개 파츠는 같은 컬러로 이뤄져 있다. 9, 10, 11, 13, 15mm 사이즈로 구성돼 있다. 옷감에 부착할 때 앞 뒤 컬러가 동일해 고급스럽고 깔끔하다.

기본 색이 많은 이유는 원단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원단에 컬러를 맞춰서 염색을 많이 한다. 대량의 경우 원단 컬러에 맞춰서 생산 오더를 하기도 한다.

똑딱이 단추는 채울 때 소리와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강하면 옷이 찢어져 버린다. 약하면 또 열린다. 이 과정에 대한 기술 테스트를 수없이 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스냅단추는 적정 수량 정밀 설계로 생산된다. 일본산과 비교한 자체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제품의 탈부착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독보적 기술력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다양한 아이템으로 시장을 공략한다. 플라스틱 스냅 단추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패션 시장에서 편리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탭(기본 스냅단추) 표면에 가벼운 무독성 알루미늄 소재를 입히고 로고 인쇄가 가능한 하이캡도 있다. 이 스냅버튼은 내구성과 디자인이 강화된 제품이다. 아웃도어 의류와 가방 등 고급 소재 의류에 어울린다. 개발자와 함께 공동 특허 출원(제10-1539891호 장식판이 결합된 단추 및 제조방법)이 돼 있다. 또 의류와 패션 잡화에 사용되는 끈조절 부자재인 막대스토퍼도 선보이고 있다.

향후에는 ‘분리 가능한 스냅버튼’ 특허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분리 가능한 스냅버튼을 선보일 예정이다. 재활



용 리사이클 원료로 만들어야 해 현재는 단가 경쟁력을 맞추기 어렵다. 앞으로 생산 시점을 고려 중이다.

이처럼 SL 하이탭만이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가고 싶은 바람이 크다. 유명 패션 브랜드 등 다양한 국내외 브랜드들이 사용하면서 회사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골프와 아웃도어, 유아복 브랜드들의 협력업체에서 오더가 주를 이룬다. 현재는 B2B 영업 위주다. 일부 사용해본 B2C 반응은 호응이 높은 피드백을 준다.”

현재 시장 접근 전략은.

“현재 3년째 동대문 통일상가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3년 전인 2022년과 2023년 PIS(프리뷰인서울)에 참가해 스냅단추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당시 다양한 라인업이 필요함을 느꼈다. 올해부터 시장에 공격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올 8월 PIS에 참가해 글로벌 브랜드들과 구체적인 상담을 했다. 스위스 본사 ‘ON(온러닝)’ 과 캐나다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무스너클(MOOSE KNUCKLES)’ 과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향후 협업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장기적 계획은.

“앞으로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스냅과 같은 의류 부자재 아이템 라인업을 이제 대폭 증가시켜 나가고자 한다.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부자재를 온라인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AI(인공지능)와 DX(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브랜드사들이 더 많은 부자재 스펙을 보고 싶을 때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싶은 것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탁상용 카렌다 벽걸이 카렌다 가족 카렌다 동아리, 친목 카렌다



2026 달력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6년(丙午年)을 미리 준비하세요!

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CREATIVE DESIGN COMPANY
SILK ROAD
도서관/인쇄
광 개 토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821 1122 8827
021 3002 9090 / 91
pt.kwanggaeto@gmail.com

-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품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족카렌다, 동아리, 친목카렌다 제작시 최소수량 10권부터 가능



나이키스킴스, 드디어 공개... 여성 액티브웨어 시장 노린다

26일 온·오프라인 공개...내년 글로벌 확장 목표



▲나이키스킴스가 이번 주 공식 출시한다. 사진=나이키스킴스

나이키와 스킴스의 합작 컬렉션 ‘나이키스킴스(NikeSkims)’가 드디어 출시된다. 당초 올 봄 런칭이 예고됐지만 생산 지연으로 연기되며 이달 26일 공식 데뷔를 알렸다. 두 브랜드는 출발부터 “몸을 위한 집요한 디자인”이라는 철학을 내세우며 새로운 스포츠웨어 미학을 선언했다. 첫 컬렉션은 총 7개 라인과 58가지 스타일로 구성됐다. 이는 나이키의 오랜 스포츠 과학과 선수 네트워크, 그리고 스킴스가 축적해온 해결 중심적 접근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단순히 트레이닝 웨어에 머무르지 않고, 운동선수와 일반 소비자 모두를 아우르는 ‘일상과 운동의 경계를 허무는 옷장’을 지향한다. 출시 제품은 세 가지 상설 라인과 네 가지 계절 컬렉션으로 나뉜다. ‘매트(Mattee)’는 나이키의 드라이 핏(Dri-

Fit) 기술을 적용해 강력한 압박감과 땀 배출 기능을 결합했으며, ‘샤인(Shine)’은 광택감 있는 소재로 스트레칭과 속건성을 강화해 근력 운동에 최적화했다. 반면 ‘에어리(Airy)’는 메시에서 영감을 받은 니트 구조로, 저항도 활동이나 레이어링을 위한 가벼운 착용감을 제공한다. 여기에 빈티지 심리스(Vintage Seamless), 매트 트리카트(Mattee Tricot), 웨이트리스 레이어스(Weightless Layers), 샤이니 나일론(Shiny Nylon)이라는 계절성 컬렉션이 더해지며 활용 폭을 넓혔다. 이로써 소비자는 계절과 운동 목적에 맞춰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완성형 스포츠웨어를 경험할 수 있다.

스킴스의 창립자 킴 카다시안은 이번 협업에 대해 “여성용 액티브웨어를 타협 없이 재정의하는 것”이라며, 이번 컬렉션이 “최첨단 기능성과 대담한 스타일을 결합해 여성들이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나이키의 부사장 에이미 몬태뉴 역시 “이번 출시는 여성 스포츠 경험에 대한 대담한

ESG 경영과 인도네시아 법률의 접점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은 글로벌 기업들의 필수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ESG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회사(PT PMA)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법적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ESG 관련 법률 제도와 이를 기업 전략에 통합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1. 인도네시아의 ESG 관련 주요 법률 체계

- ① 환경(Environment) 분야
 - 환경영향평가법(AMDAL): 제조업, 대규모 시설 운영 기업은 사업 착수 전 AMDAL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폐기물 처리법 및 배출 허용 기준 규제: 위반 시 사업 중단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에너지효율법: 특정 산업에 대해 에너지 절약 계획 제출 요구
- ② 사회(Social) 분야
 - 노동법(Law No. 13/2003): 공정한 근로계약, 최저임금, 퇴직금 기준 의무화
 - 지역 사회 기여 의무: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CSR 활동 보고서 제출 요구
- ③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
 - 회사법(UU PT): 이사회 운영, 감사 기능, 주주총회 절차 명시
 - 내부 통제 제도 의무화: 대규모 기업의 경우 내부 감사 기능 강화 필요

2. ESG 요소를 경영 전략에 통합하는 방법

- ① 환경(E)
 - ESG 정책 수립: 배출량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설정
 - 친환경 공급망 구축: 협력업체 선정 시 환경 인증 조건 부여
- ② 사회(S)
 - 다양성 및 포용정책 도입: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장애인 채용 장려
 - 지역 커뮤니티 연계 활동: 교육 후원, 인프라 기부 등 지역 기반 신뢰 확보
- ③ 지배구조(G)
 - 내부 감사 및 리스크 위원회 설치: 정기 리스크 보고 체계 운영
 - 윤리강령 수립 및 준수교육 정례화: 부패방지법 위반 방지

3. 인도네시아 ESG 관련 평가 및 인센티브

- 정부 인증: ‘PROPER’ 등급 시스템을 통해 환경성과 우수 기업 선정
- 국제 투자자 평가: 글로벌 ESG 평가기관(Sustainalytics, MSCI 등)의 기준을 반영한 기업 가치 평가 확대
- 세제 혜택: 일부 환경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또는 감면 가능

4. ESG 경영을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

- 법률 및 회계 자문을 통한 ESG 리스크 진단
- ESG 보고서 발간: 연 1회 이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권장
- 이해관계자(정부, 투자자, 지역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변호사 함상욱
ESG는 단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재무적 성과로 연결되는 핵심 전략이다. 인도네시아의 법률 환경은 ESG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도 이에 발맞춰야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PT PMA로서 ESG 기반의 법률 대응은 곧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다.

- 법무법인 HAMINDO/BAP LAW FIRM,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전문 분야: 기업 법무, 파산 관제, 건설 관련 법무, 광산 관련 법무, 형사 법무
- 한국 부경대학교 석사, 인도네시아 UNMA UNV. S2(석사)
- BAP 법무법인
-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인도네시아 변호사
- MEDIATOR (법원중재인 / MMI 민사법원)
- TAX LAWYER (세무변호사/ PEN-GADILAN PAJAK 세무법원)
- KURATOR (파산관재인/ KEMENKUMHAM 법무부)
- MINING LAWYER (광물변호사/ PERKHAPPI BNSP)
- 다국적 기업 M&A 법률 자문 (PT, Nestle Indonesia)
- 인도네시아 한인 업체 법률 자문
- 인도네시아 봉제협회 (KOGA) / 인도네시아 땅그랑 한인회 자문 변호사

2026년
카렌다 제작
021 3002 9090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진화’라 규정하며, “여성을 중심에 둔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그녀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축하하는 컬렉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최근 스포츠웨어 시장이 단순한 운동복을 넘어 패션과 일상을 아우르는

‘에슬레저(athleisure)’로 확장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여성 소비자층의 지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두 브랜드가 내세운 전략적 포지셔닝은 뚜렷하다. 나이키스킴스는 오는 26일부

터 나이키와 스킴스의 온라인 채널을 비롯해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글로벌 확장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도매 파트너십도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라이프워크, 인도네시아 본격 진출...자카르타 매장 오픈 '글로벌 확장'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라이프워크(Lifework)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글로벌 확장에 기대감이 고조된다. 라이프워크는 지난 23일 자카르타의 대표 럭셔리 쇼핑몰 Plaza Indonesia 4층에 플래그십 매장을 성대하게 오픈했다. 그랜드 오픈 행사에는 현지

파트너사인 Bukalapak, Plaza Indonesia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이 참석했으며, 테이프 커팅식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브랜드 철학과 비전을 소개했다. 라이프워크는 2018년 설립 이후 미니멀하면서도 강렬한 그래픽 디자인과 브랜드 아이콘 라독(LADOK)을 중심으로 정체성

을 구축해왔다. 이번 매장은 단순 판매 공간을 넘어 LADOK 설치물과 인더스트리얼 모던 감성을 연출해 소비자가 몰입형 브랜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문환 라이프워크 대표는 “이번 플래그십 매장 오픈은 한국 스트리트웨어를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가까이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걸음”이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라이프워크도 이 흐름 속 일부로 자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라이프워크 측은 “인도네시아

는 젊은 소비층이 두터우며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현지 파트너와 협업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강화하고, 향후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오픈은 단순 리테일 확장이 아닌 인도네시아 내 K-패션 수요 확대 속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실제로 2025년 4월 기준, 인도네시아는 한국 문화 관심도 조사에서 28개국 중 2위를 기록하며 높은 K-컬처 수요를 입증했다.

특히 라이프워크는 향후 6개월 내 자카르타, 수라바야, 발리 등 주요 도시에 6개 매장 추가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할 예정이다. 플래그십 매장에서는 최신 컬렉션과 한정판 아이템,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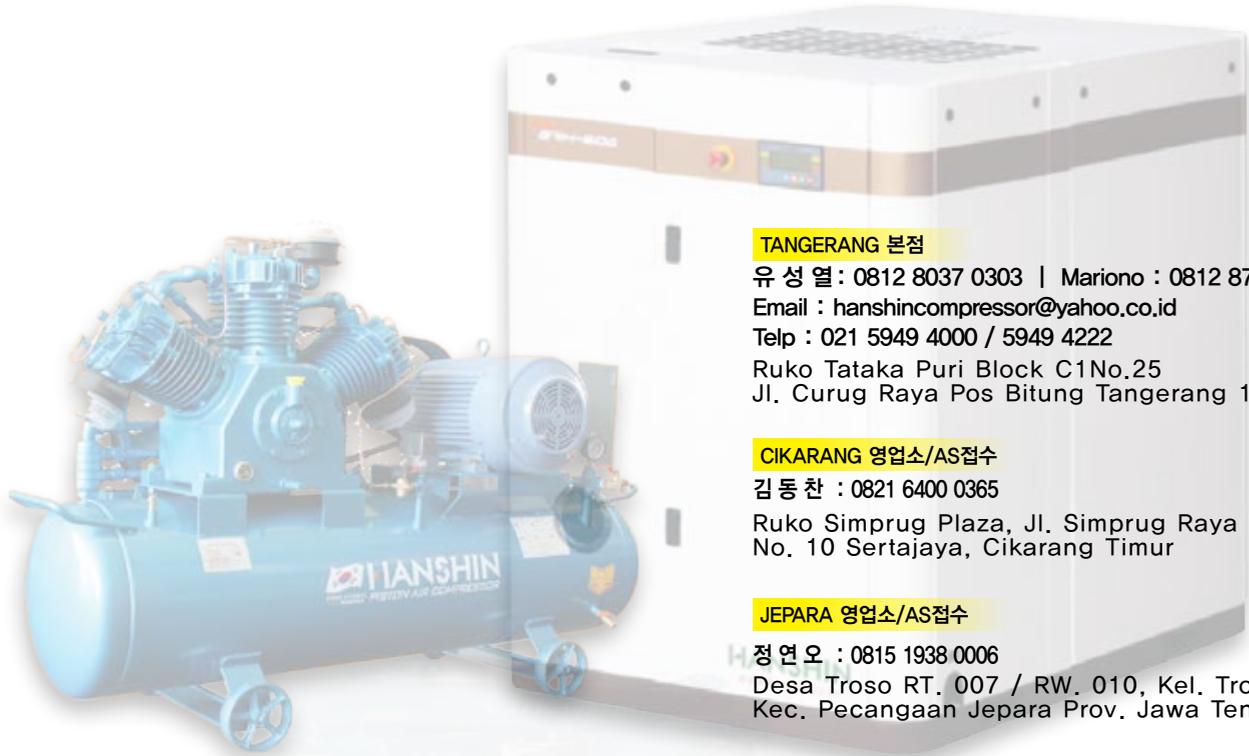


업 제품까지 선보이며, 라이프워크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